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5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을 찾은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가 주요 현안 청취를 한 뒤 김영재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 식품산업 중심지로 한층 더 집중 육성할 것”

신원식 정부부지사,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행정

“기업지원시설 확대 통한 신제품개발 등 산단 활성화”

전북도가 전국유일의 식품전문산업 단지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 단지’ 현장을 방문하고, 전북도식품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는 이날 한국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으로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주요현안을 청취하고, 산단시설 점검 등의 행보를 통해 “전북도를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한층 더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내 식품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위해 신(新)6대 기업지원시설로 소스산업화센터, 가정간편식(HMR), 기술지원센터, 농식품원료중계 공급센터, 기능성식품제조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 기능성원료은행 등 시설구축에 오는 2023년까지 8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유치 및 홍보, 기업 비즈

니스지원, 기업 기술지원 등의 사업에 237억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전북도에 보다 많은 식품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118개사가 입주해 72.3%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3년내에 분양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북도가 명실상부한 식품산업 중심지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는 “기업지원시설의 확대 구축을 통한 신제품개발, 안정성 검사, 시험·분석 등과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며 “새로이 출범하는 새 정부에 2단계 확장을 요청하고, 필요한 연계시설 등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생태문명시대의 중심으로

도,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조기 착공 기본·실시설계 예산 확보 나서  
축구장의 500배 크기... 야생동물 서식지·자연생태섬·염생식물천이지 등 조성

전북도가 새만금 생태계 복원 및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단계 환경생태용지’는 지난해 8월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일원 새만금 내부에 0.79km 규모(축구장 약 100배 면적)로 준공해 현재 시범 운영중이다.

도는 그간,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 예타 통과를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북지방환경청과 적극 공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 등을 꾸준히 설명했다.

또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 북연고 국회의원 등을 수차례 면담, 지원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지난해 12월 28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준공한 환경생태용지 1단계 조성사업에 이어 2단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생태문명 시대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2단계 환경생태용지 사업’은 새만금호 관광레저용지 주변에 3.57km 규모(축구장 약 500배 면적)로 국비 2,288억원을 투입해 야생동물서식지, 자연생태섬, 염생식물천이지, 국제생태환경체험원 등을 조성한다.

‘야생동물서식지’는 야생생물이 자유롭게 공생할 수 있는 대자연의 생태공간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핵심기능과 녹지구역 등 완충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자연생태섬’은 노출지를 자연 그대로 보전해 자연친화적 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 자연친화 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새만금형 복원모델을 위한 연구지로 활용된다.

또한, ‘염생식물천이지’는 동물의 은신 번식처 및 수로를 통한 생태적 수질 정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생태환경체험원’은 생태환경의 직접 체험, 연구모니터링, 교

육 등 기능을 수행하고, 해외 관광객과 연구원이 방문하는 국제적 명소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만금 환경생태용지’는 야생 동물·식물 서식 및 생태체험·환경교육 공간 제공을 위해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2060년까지 총 4단계로 단계별로 추진되고, 총 사업비는 1조 1,511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내부에 총 49.8km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환경생태용지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만금에 생명을 불어넣고 거주자와 방문객에게는 휴식과 치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세요.

## ‘국립호남권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이 최적’

여가부, 올 상반기 중 심사 통해 최종 결정

전북도가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의 입지가 익산이 최적이라고 설명하고, 익산시와 함께 우리 지역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디딤센터는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치료·교육·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이다. 현재, 경기용인과 대구 달성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호남권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4~5월중 평가 지표 확정과 제안서 접수 받아 상반기 중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익산과 광주 중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익산시가 호남권뿐만 아니라, 세종·충청권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지리적·교통적으로 최적지라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전북도는 12개, 광주·전남은 16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 2면에 계속 /유호상 기자

## 전북 청년정책의 ‘구심점’

도 청년정책포럼단 구성

주체적으로 청년 세대의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과 대안을 발굴하는 등 전북도 청년정책의 구심점을 맡을 협의체가 출범했다.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청년정책혁신센터)는 ‘제7기 전북도 청년정책포럼단’ 발대식을 지난 4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발대식은 비대면 소통 요구가 높아지는 환경에 맞춰 청년들에게 친숙한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을 활용, 가상세계 전북청년허브 메타버스를 구축해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해 전북 청년허브센터

오프라인 행사장과 온라인 메타버스 행사장에 참여한 포럼단원 74명과 함께 위촉식, 분과별 오리엔테이션, 토크콘서트, 퀴즈풀기 및 미션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제7기 청년정책포럼단은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거주 만18세~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함께, 시·군별 청년협의체·청년활동가 등 추천을 병행해 학생, 농업인, 문화예술인,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74명으로 구성됐다.

포럼단은 5개 분과(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지원, 참여·관리)로 나눠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유호상 기자

분분한 꽃비를 만나다.  
봄 향기가 가득한 정읍

| 정읍천 벚꽃로

정읍시 JEONGEUP-SI